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학 번	2023-10274	이 름	김서연
소 속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4월 2일
작 성 자	김서연

I. 교환 파견 동기

교환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생활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현지에서 지내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도 익숙해지고자 했습니다. 또한 혼자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유연한 시각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교환학생 국가로는 독일을 선택하였고, 그중에서도 아헨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헨은 독일 내에서도 비교적 물가가 안정적인 편이면서,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헨공대는 공과대학으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교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헨은 도시 자체가 대학 중심으로 형성된 곳으로 학생 비중이 높은 도시이며,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비교적 가까이 모여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도시 특유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라 생활하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입학허가서를 받은 이후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진행하였으나,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후 아헨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비자 테어민(예약)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 아헨공대 내 지원 기관인 SuperC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 대신 잡

아주었고, 이후 인터뷰 날짜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리된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메일에 안내된 절차를 따라 준비를 진행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숙소 종류와 지원방법(교내 기숙사, 교외 기숙사,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

저는 운 좋게 기숙사를 한 번에 배정받았습니다. 아헨공대 교환학생으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학교 측에서 기숙사 신청 페이지를 이메일로 안내해 주는데, 해당 경로를 통해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시 기숙사 형태나 룸메이트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대부분의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배정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아헨시에서 교환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였으며, 별도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1년 전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가지 방법으로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나 셰어하우스를 구해야 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숙사가 가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dormitory, insurance, textbook 등)

파견 대학에서 지불한 비용으로는 먼저 한 학기 기준 semester fee가 338.05유로였습니다. 해당 비용에는 NRW 지역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방학 기간 동안 수강한 독일어 단기 코스에 대해서는 200유로의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숙소는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며, 월 약 292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매달 139.11유로를 납부하였습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재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4. 기타 출국 전 준비했던 사항들

비자와 보험 외에 출국 전에는 유심과 은행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유심은 알디톡(ALDI Talk)을 이용했는데, eSIM으로 한국 번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독일 번호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계좌는 N26을 통해 개설했으며, 온라인 화상 인증만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일 현지 은행인 슈파카세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N26 계좌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통해 현지 도착 후 비교적 빠르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수강정정, 수강취소 방법

수강신청은 웰컴워크 즈음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비교적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도 길어서 시간표를 조정하는 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강의 수강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시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있으면 소개하기

수강한 과목으로는 먼저 *Innovative Technologies in Construction*이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다루는 수업으로 일부는 기계공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말시험과 과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로봇 코딩 실습도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Sustainable Building Assessment Scheme*은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제도를 배우는 수업으로, 비교적 암기 위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xpanding Engineering Limits : Culture, Diversity and Gender*는 공학 분야에서의 문화, 다양성, 성별 이슈를 다루는 강의로, 토론 중심의 수업이 특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부담 없이 수강하기 좋은 과목들이라고 느꼈습니다.

3. 학습 방법(읽을 거리가 많은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대학원 수업을 수강해야 했기 때문에, 계산이나 수학적 이론 중심의 과목은 수준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암기 위주의 수업을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정리하고 외워야 할 자료의 양은 많은 편이었지만, 비교적 방향이 명확해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영어 원문으로 그대로 익히려고 했고, 시험이 임박한 과목에 한해 일부 내용을 번역해 활용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영어로 익숙해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데,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도 용어를 영어로 알고 있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자료를 정리하고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현지 언어 공부했던 방법, 현지 친구 사귀기 등)

외국어는 출국 전부터 가볍게라도 꾸준히 접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학습 어플을 활용해 반년 정도 미리 익혀두면, 현지에서 생활할 때 기본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학 독일어 단기 코스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창하게 대화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독일어를 익혀두면 일상생활에서 훨씬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교환학생 준비물은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있어 일반적인 물품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져오지 않아 아쉬웠던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저 세트는

현지에서 은근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실내화 묶음은 여행 숙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현지 제품과 차이가 있어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블럭국도 유용했는데,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져가면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당시 환율,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 간식비, 마트에서 장보기 등)*

현지 물가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은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당시 환율은 약 1,620원 정도였고, 출국 시점에는 약 1,730원 정도까지 올라 체감 물가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독일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약 1배 정도)으로 느껴졌으며, 직접 장을 보면 생활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외식비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보다 약 1.8배 정도 비싸게 느껴졌고, 저 역시 외식은 주로 여행 중에만 하며 하루 약 6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여행 시 비행기 왕복 비용이 약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었으며, 마트 장보기는 주당 약 5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데 큰 부담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대중교통, 통신 등)*

아헨에서 외식을 할 경우에는 주로 멘사(Mensa)라는 학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한국 급식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비교적 가성비 좋은 식사로 느껴졌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주로 직접 해먹는 경우가 많았고,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도시 내에서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한국처럼 정확한 시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버스는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고, 열차 역시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지연, 플랫폼 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20~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교환학생 모임 등)*

학교 생활 외에도 다양한 교류 활동과 여가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독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아헨공대 교환학생들끼리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행사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장이나 두쫄쿠 만들기, 노래방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친해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교환학생 기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지, 도보 이용할 때 주변을 신경쓰기 등)*

아헨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라 생활하면서 큰 위험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혼자 이동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였지만, 기본적인 주의는 항상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파리나 유럽 남부 지역의 경우 밤에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여행 시에는 조금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동할 때는 호루라기 알람과 같은 간단한 안전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며 대비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동양인을 향해 "니하오"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중 되면 이 정도는 크게 신경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교환학생 참여 전과 후 달라진 점/교환학기를 보내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등

교환학생 기간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의지할 사람 없이 외국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직접 마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그 과정을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권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험도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제 성향과 가치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한층 더 유연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차분히 고민해볼 수 있었던 점도 큰 변화로 남았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한 학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귀국하고 나서 현지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향후 미래 계획 등

귀국 후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보며, 영어 실력이 향상된 동시에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시점부터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이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